

〈번역논문〉

唐代 前期의 閑廐體制와 北衙禁軍*

하야시 미키(林美希) 저

鄭炳俊 역**

〈목차〉

- I. 머리말
- II. 당의 閑廐와 그 변천 -左右六閑에서 內外閑廐로
- III. 閑廐에서의 飼養과 그 입지
- IV. 北衙와 閑廐馬의 관계
- V. 맺음말

I. 머리말

동서고금에서 ‘국가’를 지탱하는 최대 기반의 하나가 군사력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것은 또 중국 唐王朝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며 國初부터 安史의 亂에 이르기까지 왕조의 병력은 國家軍인 南衙와 皇帝 近衛軍인 北衙가 병립한 南北衙體制에 의해 유지되며 국가통치의 안

* 이 글은 林美希, 『唐代前期北衙禁軍研究』, 汲古書院, 2020의 제3장 「閑廐體制と北衙禁軍」을 번역한 것이다.

** 東國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과 확대를 담당하였다. 이 중 북아는 당대 전기를 통해 반복된 궁중정변과의 관계 속에서 제도로 확립된 군대였다.

먼저 앞의 제2장 「唐代前期における北衛禁軍の展開と宮廷政變」에서는 당대 전기 북아의 확대과정을 검증하고, 또 그 조직의 확대는 황위계승을 둘러싼 정쟁 시에 북아가 실제 동원부대로 이용되었던 것에 기인하며 동시에 북아 내부의 宿衛兵(羽林軍)과 護衛兵(龍武軍)이라는 두 세력간 경합의 결과였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제1장 「唐代前期宮廷政變をめぐる北衛の動向」¹⁾에서 언급하였듯이 궁중정변은 궤기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속도가 승부를 좌우하였다. 북아병에게도 당연히 스피드가 요구되었다. 이는 북아의 주력이 기병이라는 점을 쉽게 상상하게 한다. 그렇다면 북아병이 이용한 軍馬는 어디에서 공급되었을까. 이 관점에서 관련 사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閑廐'라는 조직과의 관계가 부각된다.

'한구'란 어떠한 조직이었을까. 당의 馬政을 관장하는 기관에는 監牧과 한구가 있었는데, 전자는 지방의 관영목장이었던 데 비해 후자는 중앙의 황제 전속 목장이다. 하지만 한구의 존재는 당의 마정 연구에서는 거의 등한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종래의 연구에서는 중앙에서 말을 운용하는 한구가 아니라 지방에서 말의 증식을 담당한 감목의 고찰에 주안점을 두었고, 한구는 감목에서의 말 관리에 부수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 한구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음 세 종류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는 당대 마정기관의 한 요소로 한구를 개관한 謝成俠·橫山貞裕·馬俊民·王世平·乚小紅의 논저이다.²⁾ 그리고 『新唐書』 권50, 兵志, 馬 조를 追

1) [역자주] 林美希 저, 정병준 역, 「唐代前期 宮中政變을 둘러싼 北衛의 동향」, 『동국사학』 77, 2023.

2) 謝成俠(千田英二 譯), 『中國養馬史』, 日本中央競馬會弘濟會, 1977(原書는 科學出版社, 1959); 橫山貞裕, 「唐代の馬政」, 『國土館大學文學部人文學會紀要』 3.

補하는 형식으로 논증한 唐長孺와 당대 마정의 변천이 감목을 기초로 한 前期에서 안사의 난에 따른 隴右의 상실에 의해 후기의 한구 중심 체제로 이행한다는 흐름으로 파악하는 齋藤勝의 연구도 여기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³⁾ 이들은 논의의 비중을 감목에 두는 것이 그 특징이다.

둘째는 한구와 그 使職(閑廐使·飛龍使)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한구사의 연혁을 추적한 寧志新, 한구와 그 사료를 다룬 李琳, 또 閑廐馬의 내원과 사육을 기초적으로 정리한 董軍讓의 논고이다.⁴⁾ 또 특히 한구 가운데 최상급의 廐舍인 飛龍廐를 관장한 비룡사에 대해서는 趙雨樂에 의한 일련의 연구 외에⁵⁾ 환관 요직으로서의 사직 연구의 일환으로 礪波護·馬俊民·齊勇鋒·唐長孺 4인이 언급한 것이 있다.⁶⁾

셋째는 한구와 금군의 관계에 착목한 것으로 李錦繡의 저작이 선구적이다.⁷⁾ 하지만 북아병과 한구마(六閑馬)의 관계에 대해서는 馬俊民·王世平과 寧志新이, 또 한구마가 정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은 董軍

1970, 127~175쪽; 馬俊民·王世平, 『唐代馬政』, 西北大學出版社, 1995; 七小紅, 『唐五代畜産經濟研究』, 中華書局, 2006.

- 3) 唐長孺, 『唐長孺文集 唐書兵志箋正(外二種)』, 中華書局, 2011(初版은 1957); 齋藤勝, 「唐代之馬政と牧地」, 『日中文化研究』 14, 1999, 44~51쪽.
- 4) 寧志新, 「唐朝的閑廐使」, 『中國社會經濟史研究』 1997-2, 7~13쪽; 同, 『隋唐使職制度研究(農牧工商編)』, 中華書局, 2005; 李琳, 「唐代養馬技術初探」, 『文博』 1998-5, 51~60쪽; 董軍讓, 「唐代閑廐考」, 『文博』 2006-2, 25~29쪽.
- 5) 趙雨樂, 「唐代における飛龍廐と飛龍使 -特に大明宮の防衛を中心として」, 『史林』 74-4, 1991, 122~137쪽; 同, 「唐代における內諸司使の構造 -その成立視點と機構の初歩的整理」, 『東洋史研究』 50-4, 1992, 116~163쪽; 同, 『唐宋變革期之軍政制度 -官僚機構與等級之編成』, 臺灣·文史哲出版社, 1994.
- 6) 礪波護, 「三司使の成立について -唐宋の變革と使職」, 『唐代政治社會史研究』, 同朋舍, 1986, 3~34쪽(初出은 1961); 馬俊民, 「唐代宦官專權與北軍·馬政的關係」, 『河北大學學報』 1987-4, 115~120쪽; 齊勇鋒, 「唐後期的北衙六軍·飛龍·金吾·威遠和皇城將士」, 『復印報刊資料』 1989-7, 43~48쪽; 唐長孺, 「唐代的內諸司使及其演變」, 『唐長孺文集 山居存稿』, 中華書局, 2011, 252~282쪽(初版은 1989).
- 7) 李錦繡, 『唐代制度史略論稿』,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98.

讓이 이미 지적하였지만,⁸⁾ 한구마의 군사적 측면은 전적으로 당 후반기의 비룡사를 중심으로 한 환관의 권력 장악에 대한 분석에 치우쳐 있고 당 전반기 한구의 구조나 북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되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당 전반기 한구의 양상과 그 말의 운용에 대해 북아와의 관련 속에서 고찰을 심화시켜 보겠다.

II. 당의 閑廐와 그 변천 -左右六閑에서 內外閑廐로

한구란 황제 및 궁정이 사용하는 御馬를 廐舍에서의 '繫飼'를 중심으로 사육하는 시설이다. 당의 律令官制 하에서는 殿中省에 속했지만, 실질적으로 武則天期 이후는 한구사, 그리고 玄宗期 이후부터 당말까지는 비룡사가 통할하였다. 그 연혁을 적은 사료를 들면 다음과 같다(번호는 성립 순. A·B는 [그림 1]에 대응, 'B-'는 부분적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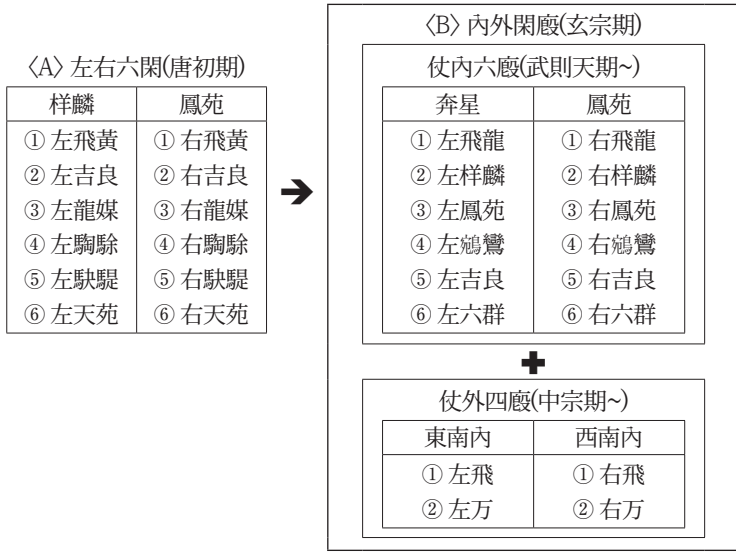
- (1) 『唐六典』 권11, 殿中省, 尙乘局(A/B)
- (2) 『通典』 권26, 職官8, 尙乘局 奉御(A/B-)
- (3) 『舊唐書』 권44, 職官志3, 殿中省, 尙乘局(A/B-)
- (4) 『唐會要』 권65, 殿中省, 閑廐使(A/B-)
- (5) a 『新唐書』 권47, 百官志2, 殿中省(B)
b 『신당서』 권47, 百官志2, 尙乘局(A)

8) 前掲 註(2)의 馬俊民·王世平, 『唐代馬政』; 주(4)의 寧志新, 『隋唐使職制度研究(農牧工商編)』; 주(4)의 董軍讓, 『唐代閑廐考』.

c 『신당서』 권50, 兵志, 馬(A/B-)

이들 사료를 이용하여 한구의 體制를 파악하려 한 시도로는 馬俊民·王世平 2인(복원에 사용된 사료는 (1)·(3)·(5)a~c), 趙雨樂((1)·(5)a~c), 李錦繡((1)·(3)·(4)·(5)a), 董軍讓((5)a·b)에 의한 復元案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통일된 정합성 있는 견해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 각 설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위의 사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그들 중 편찬된 시기로부터 보아 가장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음의 『당육전』(사료(1))이다([] 안은 原注. 이하도 마찬가지).

尙乘奉御는 內外閑廐의 말을 관장하며 그 좋고 나쁨[羸良]을 분별하고 그 疇馭를 거느린다. 直長은 그 차관이다. 六閑은 첫째 飛黃, 둘째는 吉良, 셋째는 龍媒, 넷째는 駒駉, 다섯째는 馱驄, 여섯째는 天苑이다. 좌·우로 무릇 12閑이 있고 나누어 2廐로 하였다. 첫째는 祥麟, 둘째는 鳳苑으로 말을 繫飼한다. [지금(개원 연간) 仗內에 飛龍·祥麟·鳳苑·鵠鸞·吉良·六群 등의 6구가 있고, 奔星·內駒 등의 두 閑이 있다. 仗外에 左飛·右飛·左萬·右萬 등의 4한이 있고 東南內·西南內 등의 두 구가 있다](中華書局, 330쪽).



【그림 1】 唐代 前期 閑廄體制의 이행

위의 기사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 본문과 원주가 각각 전혀 별개의 한구체제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한구는 좌우에 각각 飛黃 이하의 6'閑(廄舍)을 가진 12閑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 12한은 좌6한과 우6한의 2'廄'로 분할되었고, 두 개의 廄舍群에는 祥麟·鳳苑이라는 그룹명이 주어졌다(좌우6한체제 【그림 1】A). 이에 대해 원주에 있는 '지금'의 개원 시대에는 한구는 장내6한⁹⁾과 장외4한으로 구성되었고 나아가 장내는 분성·내구라고 하는 2개의 그룹으로, 장외는 동남내·서남내라고 하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내외한구체제 【그림 1】B). 즉 당 전반기를 통해 한구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당육전』의 기술은 사료(2)~(5)로 어떻게 繼受된 것일까. 먼저 한구의 변천에 대해서는 그 當初의 모습이 좌우6한이었다는 점에서는

9) [역자주] 본문의 사료에는 장내의 '6구'라고 적혀 있다.

각 사료에 큰 차이가 없다(2)~(4)·(5)b·c로 일치). 그 성립 시기도 '6한마'의 용례로부터 정관 연간까지 소급할 수 있다.¹⁰⁾ 그런데 그 한편으로 내외한구에 관해서는 불규칙한 기술이 있고 변용의 과정도 명확하지 않다. 그에 따라 검토해야 할 문제는 저절로 한구의 좌우6한으로부터의 轉化와 내외한구 성립의 是非로 좁혀진다.

그런데 앞의 『당육전』(사료(1)) 이외에 한구의 조직개편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2)~(4)가 있다. 이 가운데 『구당서』(사료(3))는 앞 『당육전』의 '분성·내구 등' 이하의 기술은 없지만, 그 이외는 동일한 문장이므로 기본적으로 『당육전』을 답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통전』(사료(2))과 『당육전』(사료(4))은 예컨대 『통전』 원주에

尙乘奉御는 六閑馬를 관장한다. 첫째는 飛黃閑, 둘째는 吉良閑, 셋째는 龍媒閑, 넷째는 駒駟閑, 다섯째는 駃騠閑, 여섯째는 天苑閑이라고 한다. …… 武太后 萬歲通天 2년(697) 5월 杖內閑廐를 두고 殿中丞 袁懷哲에게 檢校하게 하였다(中華書局, 744쪽).

라고 하듯이 무측천 만세통천 연간(696~697). (2)는 '2년 5월', (4)는 '월년 5월', (5)a는 '월년'으로 적혀 있음에 杖(仗)內閑廐를 두었다고 할 뿐이다.

그것에 대해 『신당서』(사료(5))에는 한구에 관한 기술이 백관지(a·b)와 병지(c)의 3군데에 있다. 백관지a(전중성 조)에서는 杖內六閑에 대해, 또 백관지b(상승국 조)와 병지c에서는 좌우6한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만, 이들 기사, 특히 백관지a·b로부터는 마치 좌우6한과 장내6한이 병존하였다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10) 『唐會要』 권72, 京城諸軍, 羽林軍 조, “上(즉 태종)遊幸, 則衣五色袍, 承六閑馬, 賜猛獸衣鞵以從之”(上海古籍出版社, 1529~1530쪽).

[(5)a (전중성 조)] ㉠左右仗廐는 左를 奔星, 右를 內駒라고 하고 兩仗 안에 또 ㉡六廐가 있는데, ㉢첫째는 左飛, 둘째는 右飛, 셋째는 左萬, 넷째는 右萬, 다섯째는 東南內, 여섯째는 西南內라고 한다. …… 武后 만세통천 원년(696) 仗內六閑을 두었다. 첫째는 飛龍, 둘째는 祥麟, 셋째는 鳳苑, 넷째는 鶡鸞, 다섯째는 吉良, 여섯째는 六群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六廐라고도 하였다.

[(5)b (상승국 조)] 內外閑廐의 말을 관장하였다. 좌우6한은 첫째가 飛黃, 둘째가 吉良, 셋째가 龍媒, 넷째가 駒駟, 다섯째가 馱驪, 여섯째가 天苑이다.

위의 a·b는 『신당서』 안에서는 분할 배치되었지만, 실은 일련의 사료로 보아야 할 기사이다. 왜냐하면 한구의 성립은 b(좌우6한) → a(仗內6한)의 순서였고, 더구나 b+a의 증설이 아니라 b→a라는 형태변화였다는 것은 『당육전』·『구당서』를 비롯한 모든 사료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밑줄 친 ㉠‘左右仗廐’는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左를 奔星, 右를 內駒라고 한다”는 것은 『당육전』에 의하면 仗內6한이다. 기사a는 나아가 밑줄 친 ㉡“兩仗 안에 또 六廐가 있다”라고 이어지는데, 기사 자체가 후반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6구라고 칭해지는 것도 역시 장내6한이다(밑줄 친 ㉢). 그리고 “첫째는 左飛, 둘째는 右飛”라고 이어지는 廐舍 이름은 『당육전』에서 말하는 仗外4한과 일치한다. 이상으로부터 기사a에는 장외4한을 나타내는 밑줄 친 ㉣가 잘못 삽입되었고, 左右仗廐란 “좌우로 나누어진 仗內6한”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신당서』 병지c와 백관지a가

[(5)c 좌우6한 …… 12한을 총괄하여 2廐라고 하고, 첫째는 祥麟, 둘째는 鳳苑이라고 하였다.

[(5)a] 左右仗廡는 좌를 奔星, 우를 內駒라고 하였다. 兩仗 안에 다시 6廡가 있다.

라고 대응하는 것으로부터 좌우6한과 장내6한은 어느 쪽도 12개의 廡소가 좌우에 6개씩 속하는 편성이었던 것도 뒷받침된다. 다만 좌우6한에 소속된 구사는 飛黃閑과 같이 '閑'으로 칭해진 것에 대해 장내6한의 구사는 飛龍廡와 같이 '廡'로 칭해졌다.¹¹⁾ 그리고 기사 c에는 좌우6한의 서술 뒤에 “그 후 禁中에 또 비룡구를 증치하였다”라고 한다. 이는 체제변화의 묘사로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장내6한이 성립된 후 점차 비룡구만이 비대해지고 다른 구사는 유명무실해졌다는 사실로 보면 대세를 나타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떤 사료도 내외한구 가운데 장내6한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고 장외4한의 존재는 (앞의 『신당서』 (5)a에 불완전한 형태의 묘사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당육전』(사료(1))에서만 확인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장내6한과 장외4한의 설치시기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장외4한은 무측천기에 좌우6한이 장내6한으로 계승된 때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지만, 『당육전』이 편찬된 현종기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사이의 어느 시점에 추가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지금까지 서술한 한구의 단계적 확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당 초의 한구는 '좌우6한'으로 칭해졌다(체제A).
- ② 좌우6한은 무측천기에 장내6한으로 개편되었다.
- ③ 그 후 현종기에 이르는 사이에 장외4한이 증설되었다.
- ④ 현종기의 한구는 '내외한구'(장내6한 + 장외4한)로 칭해졌다(체제B).

11) '廡'와 '閑'은 左右六閑에서는 2廡가 6閑을 총괄하는 명칭인 것과 같이 본래 구별되어 있었는데, 그 후 互用되게 되었다(전계 주(5)의 趨雨樂, 「唐代における飛龍廡と飛龍使」, 125쪽).

이러한 결론은 선행 학설들과 크게 다르다. 예컨대 王世平은 무측천이 仗內6廐를 설치하기까지 12한은 모두 장외였고 개원 연간에는 장내·장외를 아울러 40(14?)개의 구사가 존재하였다고 보았다.¹²⁾ 또 趙雨樂은 당 초에는 左右仗廐와 左右六閑이 존재하였고 그것이 무측천기의 改變을 거쳐 현종기까지에 장내한구와 장외한구로 개편되었다고 보았다.¹³⁾ 두 논문에 공통된 것은 『신당서』 안의 세 군데에 분산된 기술을 근거로 『당육전』 기사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복원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내용의 중복이 고려되지 않아 사료 간의 모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신당서』 백관지의 두 기사로부터 좌우6한과 장내6한이 병립한다는 설을 끌어낸다는 점에서는 董軍讓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¹⁴⁾ 또 李錦繡는 무측천기에 설치된 장내한구는 비룡구뿐이었고 그 후 좌우6한이 흡수되어 개원 연간에 장내한구가 완성되었으며 그 한편으로 비룡구가 장외4한으로 발전하였다고 파악한다.¹⁵⁾

이들 선행 연구에 공통된 해석의 혼란은 다음 두 가지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신당서』 백관지 a·b 기사의 시차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당서』에 중점을 두고 『당육전』을 읽어본다면 순서가 완전히 반대가 되어 좌우6한의 장내6한으로의 개변이라는 한구변혁의 핵심이 애매해진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는 『신당서』 기사 a에만 보이는 ‘左右仗廐’를 잘못 해석하였다는 것이다. 사료에 보이는 ‘좌우장구’·‘장내한구’·‘장내6한’은 표현이 달라도 실은 모두 같은 한구체제를 가리킨다고 보지 않으면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12) 주(2)의 馬俊民·王世平, 『唐代馬政』, 53~54쪽.

13) 주(5)의 趙雨樂, 『唐代における飛龍廐と飛龍使』, 126쪽(表1).

14) 주(4)의 董軍讓, 『唐代閑廐考』.

15) 주(7)의 李錦繡, 『唐代制度史略論稿』, 313~315쪽.

Ⅲ. 閑廡에서의 飼養과 그 입지

1. 閑廡의 소재지

앞 절과 같은 경과를 거쳐 현종기에 내외한구체제가 확립되었다고 한다면 장내6한·장외4한의 장내·장외란 대체 어떠한 구분일까. 唐의 衛禁律은 城門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황제가 있는 곳[御在所]¹⁶⁾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형벌의 경중을 정하였다.

[外] 京城門 - 皇城門 - 宮城門 - 宮門 - 殿門 - 上閣門 - 宮城諸門 [內]

또 『唐律疏議』 권7, 위금률 제59조 ‘闌入宮殿門及上閣’에

上閣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絞에 처한다. [만약 仗衛가 있으면 ‘闌入殿門法’과 같다. …] 疏議에 말하길 ‘上閣 안’이란 太極을 말하며 殿의 동쪽을 左上閣, 殿의 서쪽을 右上閣이라고 한다. 그 門에 籍이 없다. 마땅히 들어가야 하는 자는 勅에 準하여 引入한다. 闌入하는 자는 絞에 처한다. “만약 仗衛가 있다면”이란 상합 안은 仗衛를 세우지 않고 안에 坐하여 仗¹⁷⁾을 부르면 비로소 仗이 들어가는 것이다(中華書局, 151쪽).

라고 하듯이 태극전의 東西에 있는 상합문(大明宮의 경우는 宣政殿의 동

16) [역자주] 律令研究會 編, 『譯註日本律令』 6(唐律疏議譯註篇2), 東京堂出版, 1984, 40~41쪽 참조.

17) [역자주] 『唐律疏議』 권7, 衛禁律2, 諸闌入宮門 조, “仗, 謂兵器杵棒之屬”(150쪽).

서)의 안쪽 구역에는 仗衛(무장한 궁정경호병)를 배치하지 않고 門籬¹⁸⁾도 없으며 출입은 勅으로만 허락되었다. 장위는 좌우상합문의 바깥쪽에 侍立하였고, 황제에게 소환되어 알현하는 자는 그들을 따라 內朝로 參入하였던 것이다.¹⁹⁾ 또 仗外란 字義的으로는 문의 안팎을 지키는 衛士 대열의 바깥을 말한다.²⁰⁾ 이들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仗內란 병사가 주위를 둘러싸고 경비하는 구역 안쪽의 비무장 지역(禁中)을 말하고, 법률용어로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中朝와 內朝²¹⁾의 경계선상에 위치하는 좌우상합문의 안쪽 공간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장내·장외도 이 의미를 바탕으로 할 것이지만, 아무리 한구가 황제 전용목장이라고 해도 장내 즉 궁중에 목장이 있어 그곳에서 御馬가 사육되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원래 말 사육에는 광대한 부지가 필요하였다. 그렇다면 한구의 장내·장외란 어떠한 구역을 말할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구의 장소를 특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구의 구체적인 입지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宋敏求의 『長安志』와 呂大防의 「唐長安城圖碑」, 徐松의 『唐兩京城坊考』에 의해 비룡구의 위치(대명궁의 北面, 興慶宮의 東面)가 알려졌을 뿐이다.²²⁾ 『당육전』 권11,

18) [역자주] 律令研究會 編, 『譯註日本律令』 6(唐律疏議譯註篇2), 14쪽, 21쪽 참조.

19) 松本保宣, 「唐代之正殿奏事 - 對仗奏事と仗下奏事」, 『唐王朝の宮城と御前會議 - 唐代聽政制度の展開』, 晃洋書房, 2006, 127~128쪽.

20) 窪添慶文, 「衛禁律」, 律令研究會 編, 『譯註日本律令』 6(唐律疏議譯註編2), 37쪽.

21) [역자주] 와타나베 신이치로 저, 문정희·임대희 역, 『친공의 옥좌』, 신서원, 2002, 73~74쪽 등 참조.

22) 「唐長安城圖碑」에 대해서는 妹尾達彦, 「中國都城の沿革と中國都市圖の變遷 - 呂大防「唐長安城圖碑」の分析を中心にして」, 館野和己 編, 『古代都城のかたち』, 同成社, 2009, 175~200쪽을 참조. 『陝西通志』에 의하면 太極宮 북면에도 飛龍廡가 있었고, 비룡구는 三宮에 각각 설치되어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다(주(5)의 趙雨樂, 『唐宋變革期之軍政制度』, 30~31쪽).

殿中省, 尙乘局에

무릇 御馬는 반드시 정중하게[敬] 다루고 調習에 인한 것이 아니면 捶擊할 수 없다. [한구의 上細馬는 만약 調習하려고 하면 단지 廐內에서만 乘騎할 수 있고 곧바로 나갈 수 없다(330쪽).

라고 하듯이 한구에서는 말의 조련이 행해졌고 駿馬(상세마)의 騎乘은 한구 안에서만 허가되는 등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동시에 위 사료로부터 한구라는 것은 단지 구사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꼭 지금의 경주마를 보유하는 목장과 같이 훈련장 등의 설비를 갖춘 대규모 시설이었던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면 다음의 『자치통감』 권218과 『唐大詔令集』 권123에 실려 있는 2개의 사료가 주목된다.

[肅宗 至德 元載(756) 7월] 同羅·突厥로서 安祿山을 따라 反한 자는 장안의 苑中에 주둔하였다. 갑술일 그 추장 阿史那從禮가 5천 騎를 거느리고 鹿馬 2천 필을 훔쳐 달아나 朔方으로 돌아가서 諸胡를 맞이하여 塢地를 훔쳐 接거하려 하였다(6986쪽).

[지덕 2재(757) 12월 15일] 그 園苑 안에 한구가 있다. 總監에게 각각 所管의 地界에 근거하여 耕種하게 하고 거둔 바의 草粟은 軍馬에게 제공하라.²³⁾

전자(『자치통감』)는 안사의 난 때 안녹산 측에 붙었던 돌궐의 아사나중례가 장안성을 점거한 뒤 禁苑에 주둔하였다가 그곳에서 사육되던 구마를 2천 필 훔쳐 도주하였다는 기사이다. 또 후자인 숙종의 조서에서는 苑

23) 『당대조령집』 권123, 政事, 「至德二載收復兩京大赦」, 659쪽. 또 『冊府元龜』 권621, 卿監部2, 監牧, 7197쪽에도 같은 기술이 있다.

内に 한구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요컨대 이 두 개의 사료는 어느 것이건 한구가 장안성의 북쪽에 펼쳐진 금원 내부에 존재하였던 사실을 나타낸다. 또 방증적이기는 해도 『신당서』 백관지(5)a)에도

園苑에 官馬坊이 있고 매년 河隴의 群牧이 그 좋은 것을 올려 御에 제공 하였다(1217쪽).

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 그것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금원이 군사시설임과 동시에 말이나 소·양의 방목지를 겸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즉 李好文, 『長安志圖』 卷上の 「唐禁苑圖(內苑附)」(本書 제6장 【그림 2】)에 御馬坊이 그려져 있는 것, 『長安志』 권 6, 禁苑 등의 기술에 의해 금원 북면의 3門 가운데 동문이 飲馬門이라고 칭해졌던 것이 알려져 있다.²⁴⁾ 그런데 그 한편으로 『장안지』 권7, 唐皇城에는

承天門街의 서쪽, 제6 橫街의 북쪽이다. … 臺北은 司農寺草坊이다. 次西는 驍馬坊이다(252~253쪽).

라고 하여 황성의 서남 구역에 ‘화류마방’이 존재하였다고 한다. 이 마방의 위치에 대해서는 董軍讓이 ① 秦漢 이래 한구는 太僕寺 驍騮署 관할이었는데, 隋代에 尙乘局이 신설되어 그 관할을 분리하였다. 화류라는 명칭은 전통적으로 ‘12한’이 화류서 소관이었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② 사농시로부터는 ‘祥麟·鳳苑廐’에 사료가 공급되었는데, 화류마방은 사농시

24) 妹尾達彦, 「隋唐長安城の皇室庭園」, 『東アジア都城の比較研究』,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1, 269~329쪽.

초방에 인접하여 그 공급에 매우 편리하였다고 하는 두 가지 점을 들어 화류마방이 상린·봉원구의 소재지였고 동시에 비룡구 등의 ‘左右仗廩’는 금원 안에 분포하였다고 한다.²⁵⁾ 또 李錦繡는 앞의 ①·②에 더해 ③鹵簿에 사용하는 물품(指南車·記里鼓·輦輅 등)을 상정하고 그들은 말도 포함하여 황성 구역에 비축되어 있었다고 보고 화류마방=한구라는 결론을 내렸다.²⁶⁾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앞 절에서 검토한 대로 상린·봉원구(=좌우6한)와 ‘左右仗廩’는 동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董 씨는 화류마방에서의 한구마 사육에는 한계가 있고 그 때문에 금원에서 대량의 말이 사육되었다고 하지만, 금원은 화류마방의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장소가 아니다. 가령 兩者에 뭔가의 관련이 있다고 해도 이 두 개의 장소에는 처음부터 전혀 별개의 역할이 주어졌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둘째는 확실히 당의 전중성 상승국은 北齊의 태복시 화류서의 후신이지만, 황성 서남에 위치한 화류마방은 완전한 ‘仗外’여서 한구가 장내6한으로 칭해진 점과 모순된다. 또 황제가 이용하는 御馬를 육성하는 목장의 모체가 궁성의 중추에서 벗어난 황성 구역의 끝에 있다는 것은 입지 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李 씨가 노부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언급한 지남거·기리고·연로는 『장안지』 권7, 唐皇城에 의하면

承天門街의 동쪽, 제6 橫街의 북쪽이다. 서쪽에서 제1은 태복시 [寺의 西北隅는 乘黃畷이다. 별개로 北門을 開한다. 畷 안에 지남거·기리고 및 연로와 같은 것을 貯掌한다](251쪽).

25) 주(4)의 董軍讓, 『唐代閑廩考』.

26) 주(7)의 李錦繡, 『唐代制度史略論稿』, 311~313쪽.

라고 하는 것과 같이 태복시 승황서가 관리하였다. 마찬가지로 노부에 사용하는 말도 태복시가 관리하였다고 본다면 화류마방에서 사육된 것은 태복시 관할의 말에 다름 아니다.

이상과 같이 보면 한구=화류마방설은 재고의 여지가 있음이 명확하다. 애초 監牧으로부터 수도로 상납되는 말에는 전증성 上納馬와 태복시 상납마라는 두 종류가 있고 상납 후 어느 것도 수도의 廐舍에서 飼養되었기 때문에 일괄하여 ‘廐馬’라고 하였다(본서 제4장 참조). 그렇다면 이들 태복시 상납마야말로 화류마방에서 사육된 말인 것이고 태복시를 통해 여러 관청과 南衙諸衛에서의 公務에 이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울 것이다.

다만 “한구라고 하는 말의 사양시설이 금원 안에 존재한다”는 것과 “그 곳에서 사육된 말이 궁정의 어디에 配備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부언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²⁷⁾ 아마도 廐舍 앞에 붙여진 장내·장외라는 명칭은 이 점을 구별하고 있어서 장내6한이라면 금중(무장금지 구역)에, 장외4한은 그 외부(무장허가 구역)에 말의 ‘사육장[仕事場]’이 설치되었고 그곳에 배속된 말은 한구로부터 수시로 보충·교환되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후술하듯이 장내6한의 필두인 비룡구를 관장하는 飛龍使는 환관이었는데, 환관이 ‘장내’의 구사를 관장한 것의 의미는 이상

27) 여기서 本論의 논지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禁苑이라고 하는 공간의 취급에 대해 補足해 두고자 한다. 금원은 本書 제6장 「長安城の禁苑と北衙」에서 상세하게 서술한 바와 같이 황제가 점유한 공간이기 때문에 신하는 敕이 없으면 출입할 수 없었다. 이 점에서는 上閤門의 안쪽(禁中)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한편 금원에서는 유흥이나 훈련을 위해 狩獵이 행해진 외에, 戰時가 되면 그곳은 군사기지가 되고 평시에는 궁성과 가장 가까운 西內苑의 일각에 북아가 주둔하였다. 요컨대 무기의 휴대가 금지된 공간은 아니었던 것이다. 또 위금률에서는 금중에 闖入하는 자는 교형에 처한다고 정하였지만, 금원에 난입하면 徒 1년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금원은 ‘仗外’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과 같이 생각할 때 비로소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2. 廐馬와 國馬의 증감

주로 방목에 의해 사육되는 監牧馬에 대해 閑廐馬를 포함한 廐馬는 기본적으로 廐舍에 갇혀 사육되었다. 그 때문에 『당육전』 권7, 尙書工部, 虞部郎中 조에

무릇 殿中·太僕이 관장하는 한구마는 兩都의 皆 500리에서 그 芻藁를 공급한다(225쪽).²⁸⁾

라고 하듯이 구마에게 제공되는 飼料가 長安·洛陽의 500리 圈內에서 (稅草로서) 징수되어 司農寺에 의해 공급되었다.²⁹⁾ 하지만 한구의 경영은 항상 부족한 사료와의 싸움이었다. 다음은 그 관련 사료를 時系列로 나열한 것이다.³⁰⁾

(㉠) [태종 정관] 23년(649) 9월 廐馬가 비용을 소모[糜]하므로 3천 여 필을 남기

28) 『구당서』 권43, 職官志2, 우부랑중 조에는 “五百里內”(184쪽)라고 한다. 또 本書 제4장 「廐馬と馬印 -馬の中央上納システム」의 주(19)도 참조.

29) 『신당서』 권51, 食貨志1, “貞觀中, 初稅草以給諸閑, 而驛馬有牧田”(1343쪽); 『당회요』 권19, 司農寺, 司農寺丞 조, “其諸州稟秸應輸京·都者, 閱而納之, 以供祥麟·鳳苑之馬”(525쪽). 稅草에 대해서는 李錦繡, 『唐代財政史稿』 2,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139~145쪽 참조.

30) (㉠) 『책부원구』 권621, 卿監部2, 監牧, 7196쪽; (㉡) 『차치통감』 권201, 고종 건봉 2년 4월 조, 6352쪽; (㉢) 『신당서』 권3, 고종본기, 함형 원년 7월 갑술일 조, 68쪽; (㉣) 『당대조령집』 권2, 「中宗卽位赦」, 7쪽; (㉤) 『당대조령집』 권123, 政事, 「至德二載收復兩京大赦」, 659쪽. (㉥)의 發布 연월은 『唐代詔勅目録』, 東洋文庫, 1981, 268쪽에 의거함.

고 모두 隴右로 보냈다.

- (㉠) [고종 乾封 2년(667) 4월] 그때 蓬萊·上陽·合璧 등의 厩을 짓고 자주 四夷를 征伐하면서 厩馬는 만 필이고 倉庫는 점점 비었다. 張文瓘이 간언하여 말하길 “隋의 敎訓[鑒]이 멀지 않다. 원컨대 百姓으로 하여금 芻糧을 품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하자, 황제가 그 말을 받아들여 厩馬 수천 필을 줄였다.
- (㉡) [고종 咸亨 원년(670)] 7월 갑술일 雍·華·蒲·同 4주에 가뭄이 들었으므로 사신을 보내 慮囚하고 中御의 諸厩馬를 줄였다.
- (㉢) [中宗 神龍 원년(705) 2월 5일] 厩馬의 숫자가 많고 모두 秣飼를 필요로 하여 사람의 식량[粟]을 먹는다. 날마다 비용이 많아지므로 殿中의 諸閑厩馬는 支留를 헤아리는 것 이외에는 外州의 馬坊 및 원래의 監牧으로 抽送하라.
- (㉣) [숙종 지덕 2재(757) 12월 15일] 그 園苑 안에 閑厩가 있는데, 總監으로 하여금 각각 소관의 地界에 의거하여 耕種하게 하여 거두어들인 草粟으로 軍馬에게 공급하라.

厩馬에게 사용하는 경비가 국가재정을 압박한 문제는 稅草制가 시작된 정관 연간부터 이미 발생하였다(사료(㉠)). 이어지는 세 사료도 구마가 원정이나 궁전 조영과 함께 재정을 핍박하거나(사료(㉡)) 장안 주변에서의 한발의 영향(사료(㉢))과 구마의 사료를 공출한 탓에 인민이 식량 부족에 빠지는 것(사료(㉣)) 등의 요인으로 구마를 삭감하지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 경우 구마는 출신의 監牧이나 外州 馬坊(지방에서 傳馬 등의 공용마가 대기하는 馬坊³¹⁾)으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당 전반기에 걸쳐 왕조를 괴롭힌 구마의 증가에 수반된 사료 부족은 안사의 난을 거쳐 장안을 회복한 뒤 금원을 총괄하는 司農寺 苑總監에게 명해 園苑에서 말의 사료를 경작하게 하여 자급자족을 도모하는 것으로 일단의 결착을 보았다

31) 주(2)의 馬俊民·王世平, 『唐代馬政』, 58쪽.

(사료(ㄹ)).

이와 같이 한구에 비축된 말의 숫자는 당 전반기를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났고 사료(ㄹ)에 보이는 정관 연간의 300필에서 개원 연간에는 “개원 초에 한구마가 만여 필에 이르렀다”(『신당서』 백관지, 전중성)라고 하는 것과 같이 적어도 1만, 많으면 수만 필이 사육될 정도로 팽창하였다.³²⁾ 한편으로 왕조가 소유한 國馬의 추이를 보면 그 개요가 『신당서』·『당회요』·『冊府元龜』에도 인용된 張說의 「大唐開元十三年隴右監牧頌德碑」(이하 「監牧碑」)와 郗昂(개원 23년 進士)의 「岐邠涇寧四州八馬坊頌碑」(이하 「馬坊碑」)에 전해질 뿐이다.³³⁾ 그래서 지금 이 「監牧碑」(기사 a~d)·「馬坊碑」(기사e) 및 『당회요』 권72, 馬(기사f)에서 국마의 숫자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³⁴⁾

- a. 大唐은 周·隋 亂離의 뒤를 잇고 天下 征戰의 폐해를 이어받았는데, 殘燼을 鳩括하여 겨우 牝牡 3천을 얻었다.

32) 德宗朝이기는 하지만 『책부원구』 권621, 卿監部2, 監牧에 “德宗建中元年五月, 詔市關輔之馬牝牡二萬匹, 以實內廐”(7197쪽)라고 하여 閑廐에 2만 필이 보충된 것이 보인다. 즉 한구의 수용 가능 숫자는 그 이상으로 보아도 좋다.

33) 唐의 馬政에서 八馬坊의 역할에 관해서는 ① 한구에서의 말 사용에 대비하여 말을 飼養해 두는 기관으로 보는 馬俊民·王世平, 『唐代馬政』, 56~61쪽, ② 仗外四閑에 말을 공급하는 한구의 보조기관으로 보는 李錦繡, 『唐代制度史略論稿』, 320~328쪽, ③ 개원 연간의 말 증산은 주로 신설의 팔마방 하에서 행해졌다고 보는 連雯, 「唐代關中涇渭留役馬政之研究」, 『南通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7-2, 91~96쪽의 견해가 있어 아직 정설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팔마방과 한구의 관계에 대해서는 「馬坊碑」에 “內廐馬每年有瘠者·病者·疲者, 擇其不任者, 以頒諸坊, 則必餵之艾之, 行之節之, 俟其跳梁, 俟其充臍, 而後入之”라고 하여 한구마의 건강관리와 選別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34) 「監牧碑」는 『唐文粹』 권22와 『全唐文』 권226, 張說, 1360~1361쪽에 전하고, 「馬坊碑」는 『당문수』 권22와 『전당문』 권361, 郗昂, 2174~2176쪽에 전한다. 본문에 인용하는 錄文은 『당문수』에 따랐다. 『당회요』 권72, 馬, 1543쪽.

- b. 정관 연간에 시작되어 麟德 연간에 이르는 40년 동안 말이 70만 6천 필에 이르렀다.
- c. 垂拱 연간의 後 20여 년 동안 점점 大半이 줄어들어 존재하는 것은 대개 적었다.
- d. [개원] 원년 牧馬 24만 필이었는데, 13년은 43만 필이었다.
- e. [개원] 19년에 이르러 다시 44만 필이 되었다.
- f. [天寶] 13재 6월 1일 隴右群牧都使가 상주하여 “... 말은 32만 5천 7백 92 필이고 그 중 20만 80필은 駒이다. ...”라고 하였다.

당 창업 시에는 겨우 3천 필(『신당서』 병지는 5천 필이라고 함)이었던 국마는 정관 연간에서 인덕 연간(627~665)까지 약 40년 동안 순조롭게 증가하여 한때는 70만 필을 넘었다. 하지만 수공 연간(685~688)부터 20년을 거쳐 현종기에 이르기까지 그 2/3가 없어지고 개원 원년(713)에는 24만 필로 감소하였다. 개원 연간의 적극적인 말 증산에 의해 동 13년(725)에는 43만 필로 회복되고, 동 19년(731)에는 44만 필로 숫자를 순조롭게 유지하였지만, 안사의 난 직전인 천보 13재(754)에는 총숫자가 다시 완만하게 하강하였다. 따라서 국마의 증감은 태종부터 고종의 치세 전반까지는 증가하여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무척천기부터 예종기에 걸쳐 현저하게 감소한 뒤 현종기에 증흥한다고 하는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국마가 크게 증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구마는 항상 수용의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향이 있었고 게다가 閑駒 機構의 변화는 국마가 감소하는 무척천기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垂拱 연간의 後 20여 년” 동안에 국마가 감소한 것은 돌궐 제2가한의 성립에 의한 북방 이민족의 이반과 침입 등의 대외정세의 변화에 의해 국경지대에서의 교역 기회가 감소하고 外來馬의 수입이 저해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 계속된 정벌은 방대한 숫자의 말을 상실시켰고 이것이 監牧

에서의 말 생산에 심대한 피해를 미쳤던 것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요컨대 공급량의 정체와 수요 과다에 의해 생산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 국마가 감소하였던 것이다. 그 한편으로 한구마가 역으로 증가한 현상은 왕조로서는 불안정한 대외정세가 말 생산에 영향을 주는 만큼 유사시에 대비하여 가능한 한 많은 말을 수도에 모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식이 작용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대외적인 요인에 더해 한구마의 증가를 촉진한 대내적인 요소로서 여기서 상기되는 것이 한구마를 군마로 이용하는 기마군=북아금군의 존재이다. 그럼 한구와 북아는 대체 어떠한 관계에 있었던 것일까.

IV. 北衙와 閑廐馬의 관계

원래 북아의 원류는 현무문의 변(정변A. 이하 정변에 붙여진 알파벳은 【표 1】 참조) 후에 태종이 설치한 左右屯營에서 비롯되었다. 이 태종기에 좌우둔영과 동시에 존재하였다고 생각되는 것이 左右六閑이었는데, 『통전』 권28, 職官典10, 左右羽林軍에

大唐 정관 12년(638) 현무문에 좌우둔영을 설치하였다. 諸衛將軍에게 거느리게 하고 그 병사를 飛騎라고 하였다. 또 비기 중에서 才力이 있고 驍捷하며 射에 능한 자를 뽑아 百騎라고 하고, 遊幸에 호종할 때는 五色의 도포[袍]를 입고 6閑馬를 탔으며 맹수의 衣韉을 하사받았다(791쪽).

라고 하여 북아병이 6한마 즉 한구마를 탔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⁵⁾ 그 뒤 중종 폐위의 변(정변B)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궁중정변이 발발하였는데 (정변B~정변F), 그들 정변과의 관계에 의해 호위병 계통이 百騎·千騎·萬騎로 확대되어 本隊인 숙위병 계통과의 파워 발란스를 역전시켜 龍武軍으로 승격한다는 것이 당대 전기에 있어서 북아 역사의 대략이다(本書 제 2장 참조). 한편으로 용무군이 성립하는 현종기에는 한구도 또 내외한구체 제로의 이행이 완료되었다.

【표 1】당대 전기 北衙의 확대와 廐馬

	北衙		閑廐馬
	羽林軍 宿衛兵	龍武軍 護衛兵	
高祖 武德 9(626)	A 玄武門의 變		
太宗 貞觀 12(638) 貞觀 23(649)	北衙七營 左右屯營-飛騎	(舊)百騎 (新)百騎	左右六閑 飛騎·百騎 + 六閑馬 (→) 3,000여 필을 남기고 隴右로 이송
高宗 龍朔 2(662) 乾封 2(667) 咸亨 1(670) 調露 1(679)	左右羽林軍		(ㄴ) 廐馬 수천필 삭감 (ㄷ) 長安 근교 州에 가뭄, 廐馬 삭감 突厥遺民의 반란 시작

35) 『구당서』 권59, 姜行本傳, 2333쪽에서는 飛騎도 六閑馬를 騎乘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武則天 嗣聖 1(684) 永昌 1(689) 天授 2(691) 萬歲通天 2(697) 聖曆 3(700) 神龍 1(705)	B 中宗 폐위의 變 左右羽林衛 C 張易之형제주살의 變	千騎	仗內六閑 閑廐使의 등장 殿中監(閑廐使)+千騎 (≡) 廐馬를 外州 馬坊·監牧으로 이송
中宗 神龍 3(707) 景龍 1(707) 唐隆 1(710)	D 李重俊의 亂 E 韋后일파주살의 變	左右萬騎	仗外四閑 內外閑廐 (仗內六閑+仗外四閑) 李隆基, 內外閑廐를 장악
睿宗 景雲 1(710) 景雲 2(711) 先天 2(713)	左右羽林軍 北門四軍의 성립 F 太平公主일파주살의 變		閑廐馬의 출동
玄宗 開元 26(738) 天寶 11(752)	G 邢絳의 亂	左右龍武軍	廐馬 10,000여 필 飛龍使와 飛龍兵의 활약
肅宗 至德 2(757)			(ㄱ) 禁苑 내에서의 사료 재배 개시

당대를 통해 북아의 주력은 기병이었고 遊獵이나 賞賜를 위해 황제가 이용하는 말을 제외하면 閑廐馬의 대부분은 북아의 군마로 공급되었다.³⁶⁾ 하지만 지금까지의 검토에서는 북아의 발전이라는 事象이 한구의 편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점은 주목하지 않았다. 本節에서는 이 점에 유의하며 북아와 한구의 동향을 아울러 고찰하는 방식으로 그 관계성을 부각시켜 보겠다.

36) 주(2)의 馬俊民·王世平, 『唐代馬政』, 115쪽.

한구에 있어서 최대의 변화는 무측천기에 이루어진 좌우6한에서 仗內6한으로의 이행과 그것에 수반된 閑廐使의 등장이다. 한구사란 聖曆 3년(700)에 시작된 使職³⁷⁾으로 황제의 신변경호 강화와 비밀리에 한구마를 출동시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설치되고, 황제의 신임을 얻은 전중성의 高官이 겸임하였다.³⁸⁾

그리고 이 北衙馬를 관할하는 한구사는 때로 그 영향력을 북아에 미쳐 스스로 북아병을 이끌었다. 예컨대 『구당서』 권185상, 良吏上, 田歸道傳에

殿中監으로 옮겼으나 여전히 이전과 같이 千騎를 관장[押]하고 현무문에 서 宿衛하였다. 敬暉 등이 張易之·昌宗을 토벌할 때 使를 보내 천기를 징발[索]하였으나 전귀도는 앞서 모의에 참여하지 않아 거부하고 함께하지 않았다(4795쪽).

하고 하여 장역지 형제를 주살한 변(정변C) 때 羽林軍 천기를 통솔하여 숙위하고 있던 전귀도는 거병한 측인 재상 일파의 경휘로부터 출동을 요청 받았으나 가담을 거부하였다. 그는 『당회요』 권65, 閑廐使에 역대의 한구사로 이름이 보이는데, 바로 이때 전중감과 한구사를 겸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韋后 일파를 주살한 변(정변E)이 종료된 직후 최대의 공로자인 李隆基는 『구당서』 권8, 현종본기상에 “[景龍 4년(710) 6월] 전중감·同中書門下三品에 배수되며 左右萬騎를 兼押하고 平王으로 進封되었다”(167쪽)라고 하고, 同 권7, 睿宗本紀에

37) 『당회요』 권65, 閑廐使, 1333쪽.

38) 주(2)의 橫山貞裕, 「唐代之馬政」, 140쪽.

[경룡 4년 6월] 계묘일 殿中·兼知內外閑廐·檢校龍武右軍·仍押左右廐萬騎·平王 諱(즉 이응기)를 同中書門下三品으로 삼았다(153쪽).³⁹⁾

라고 하듯이 한구사에 임명되고 좌우만기(北衙兵)와 한구(北衙馬) 쌍방을 장악하였다. 한구사는 전중성의 관직과 함께 겸임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이응기가 한구사의 직책을 얻은 것은 정변 후라고 생각된다. 앞의 두 사료로부터 당시 북아병의 통솔과 그 騎乘馬인 한구마의 관리는 相補的 이었고 또 그때 특히 호위병 계통(천기·만기)이 한구사와 긴밀하였던 것을 엿볼 수 있다.

兵馬의 직권 가운데 말을 관장한 한구사는 이렇게 하여 점차 군사적 要職의 색채를 띠게 되고 그것이 강하게 의식되었다. 일찍이 安祿山은 『자치통감』 권217, 현종 천보 13재 정월 조에

안녹산이 閑廐·群牧을 兼領하길 청하였다. 경신일 안녹산을 閑廐·隴右 群牧等使로 삼았다. 안녹산이 또 總監을 겸하길 청하니 임술일 총감의 일을 兼知하게 하였다(6923~6924쪽).

라고 하듯이 馬政을 관장하는 관직을 탐욕스럽게 요구하여 안사의 난 직전인 천보 13재(754)에는 '閑廐·五坊·宮苑·隴右群牧都使'⁴⁰⁾가 되어 있었다. 이는 요컨대 당시 당 왕조가 소유하고 있던 약 32만 두의 말은 물론이고 官 소유의 동물(소, 양, 개, 매 등)을 남김없이 장악한 것을 의미하고 국마의 독점으로 자기 진영의 군사력을 강화하려 한 안녹산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⁴¹⁾

39) 이 시점에서는 아직 좌우만기가 우림군에 속해 있었으므로 龍武右軍은 잘못이다.

40) 『구당서』 권9, 현종본기하, 천보 13재 정월 조, 227쪽.

41) 주(2)의 馬俊民·王世平, 『唐代馬政』, 121~122쪽.

또 『당회요』 권65에 적힌 역대 한구사의 순서에 따르면 着任 순은 平王 이용기의 前代가 孫侄, 2대 앞이 號王 李崑, 3대 앞이 張涉인데, 『당대 조령집』 권38, 諸王, 「嗣號王崑同知內外閑廐敕」(景龍 3년(709) 12월 12일)에

秘書監·檢校殿中監·嗣號王 이용은 …… 마땅히 장섭과 함께 내외한구를 同知하고 나머지는 이전과 같게 한다(176쪽).

라고 하여 曷王 이용은 景龍 3년에 새로 한구사에 임명되어 장섭과 함께 내외한구를 관장하였다고 한다(단 飛龍廐만은 비룡사가 관할하였다). 이 사료와 앞에서 본 『구당서』 권7, 예종본기, 景龍 4년(710) 6월 계묘일의 기사에 ‘내외한구’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한구는 증중 말기에는 내외한구(장내6한 + 장외4한)체제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외4한이 증중기에 성립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이 상황을 북아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보면 증중기라는 것은 『구당서』 권7, 증중본기, 景龍 원년 9월 조에

임술일 左右羽林衛 천기를 만기로 바꾸고 또 좌우로 나누었다(145쪽).

라고 하듯이 바로 천기가 좌우만가로 확대된 시기에 해당한다. 북아의 增員과 장내4한의 신설 시기가 부합하는 이 상황은 무엇을 의미할까? 북아는 기병을 주력으로 하는 군단이므로 답은 저절로 명백해진다. 북아병의 증원에는 그 일환으로 기승마로서의 새로운 한구마 확보가 필요하게 된다. 기마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늘리고 말을 늘리지 않으면 본질적인 병력의 증강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즉 북아에서의 병사와 군마의 증원이 한구에 파급되어 廐舍가 증치되었던 것이며 장외4한은 景龍 3년

(709)에서 2년 거슬러 올라간 앞 사료에서 말하는 경룡 원년(707) 무렵 정비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⁴²⁾

따라서 唐 前半期の 한구는 좌우6한이 무측천기에 장내6한으로 변화하고 그 후 중종기에 장외4한이 추가되는 단계적인 확장을 거쳐 내외한구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대략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한구체제가 완성된 뒤 일어난 태평공주 일파 주살의 변(정변 F)에서도 『자치통감』 권210, 현종 개원 원년(713) 7월 갑자일 조에

황제가 王毛仲에 의지[因]하여 한구마 및 병사 3백 여 인을 얻어 武德殿에서 度化門으로 들어갔다(6683쪽).

라고 하듯이 정변 시에 한구마가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또 이 정변에서의 공적이 인정되어 왕모중이 ‘檢校內外閑廐·兼知監牧使’에, 姜皎가 ‘殿中監(仍充)內外閑廐使’에 임명되었다.⁴³⁾ 그들은 모두 현종의 親王 시기부터의 복심이었는데, 특히 왕모중이 이후 국마 증산에 착수하여 張說과 함께 개원 연간에 頭數 회복에 큰 공헌을 한 것은 「監牧碑」에서 전체의 약 반을 할애하여 칭송한 대로이다.

이와 같이 북아와 정변, 또 그 배후에 있는 북아의 확장과 한구마의 관계를 살펴보면 태종기의 좌우6한에서 현종기의 내외한구로 이행하는 사이에는 기마군인 북아의 확대에 비례한 軍馬의 증가라고 하는 관계성을

42) 李錦繡는 左飛·右飛·左萬·右萬으로 칭해진 장외4한의 네 廐舍는 각각 북아병의 左飛騎·右飛騎·左萬騎·右萬騎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것이고(주(7)의 李錦繡, 『唐代制度史略論稿』, 315~316쪽), 장외4한의 출현은 금군의 팽창에 대응한 결과라고 한다(同書, 319쪽). 북아는 현무문의 북쪽에 주둔하였으며, 그곳은 西內苑이라고 불린 금원의 一角이었다. 李의 說에 따르면 북아에 공급하는 것은 한구에서 가져온 ‘仗外’用的 말이 되므로 이는 금원이 장외라고 하는 것의 방증이 될 수도 있다.

43) 『구당서』 권8, 현종본기상, 先天 2년(713) 7월 조, 170쪽.

상정할 수 있다. 本書의 제1장에서는 당대 전기에 일어난 궁중정변(정변 B~정변E)의 승패는 북아의 장악에 달려 있었음을 서술하였는데, 북아를 자기 진영의 병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하였음에도 그 모두를 논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지금 이 장에서의 검토를 바탕으로 정변을 되돌아보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아의 출동은 말(과 그것을 장악하는 자)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아마를 관리하는 한구사의 협력·회유는 북아의 장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소였고 그 의미에서 당 전반기의 한구사는 북아에 대해 隱然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공주는 조정에 군림하며 북아장군까지 포섭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구사와 만기의 지휘관을 겸한 이용기의 기습에 의해 쓰러졌던 것이다.

그런데 한구사는 북아와 그 말의 연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직책이었는데, 현종기 이후는 직무가 비룡사에게 흡수되어 점차 虛職化되었다.⁴⁴⁾ 비룡사는 한구사와 마찬가지로 무측천기부터 존재하였다고 보이지만, 그 활동은 안사의 난 후인 당 후반기에 집중되고 전반기에는 그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비룡사의 중요성은 황제의 집무 공간이 대명궁으로 옮겨진 것과 표리 일체를 이루었다. 대명궁에서 북아는 우군·좌군으로 나뉘어 궁성의 동서에 주둔하였고 그러한 편성은 당대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그에 수반하여 대명궁 북면의 방어를 위해 그곳에 설치된 비룡구에 전문 병사가 소속되었던 것이다.⁴⁵⁾ 또 비룡구는 황제와 궁 밖이 연락을 취하는 데 아주 편리하였고 또 내외의 정세를 파악하여 임기응변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이러한 입지의 이점과 현종기 이후 비룡사에 高力士·李寶國·程元振·魚朝

44) 주(6)의 唐長孺, 「唐代的內諸司使及其演變」.

45) 주(5)의 趙雨樂, 唐代における飛龍廡と飛龍使」.

恩 등 유력한 환관이 임명된 것으로 인해 邢縉의 난(사변G)⁴⁶⁾, 안사의 난, 肅宗·代宗 및 敬宗·文宗 사이에 있었던 황위계승 시에 비룡사와 그 병마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마침내 비룡사는 환관의 요직으로서 당 후반기의 정치운영에 깊게 관여하게 된다.⁴⁷⁾ 다만 그것은 별개로 다루어야 할 문제로 後考를 기약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서술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閑廐는 당 초의 '左右六閑體制'에서 무측천기에 조직개편을 통해 仗內六閑이 성립한 뒤 중종기에 다시 仗外四閑이 추가되어 '內外閑廐體制'로 이행하였다.
- ② 앞과 같은 한구의 확대는 百騎(태종기), 千騎(무측천기), 左右萬騎(중종기), 左右龍武軍(현종기)의 연혁을 거친 北衙의 확대와 궤를 같이 하였다.
- ③ 國馬가 시기에 따라 증감한 것에 대해 한구의 말은 항상 증가하는 경향에 있었다. 그 원인은 고종기에 시작된 대외정세의 악화에 따른 外來馬의 감소와 監牧의 機能不全에 의해 말이 중앙으로 모여진 때문이다. 또 北衙兵의 증가에 따른 北衙馬의 수요 증가도 그것에 박차를 가했다고 생각된다.

46) 천보 11재(752) 邢縉와 王鐔(王鉞의 동생)이 左龍武軍 萬騎를 지휘하여 용무장군을 죽이고 장안의 성문과 시장을 불태우고 楊國忠·李林甫·陳希烈 등을 살해하려고 기도한 역모미수 사건을 말한다(『구당서』 권105, 왕홍전, 3230쪽).

47) 주(6)의 唐長孺, 「唐代的內諸司使及其演變」, 258~259쪽.

- ④ 또 한구에는 장내육한으로의 轉化를 계기로 閑廐使가 설치되었다. 한구사는 기병인 북아와 그들이 타는 말인 閑廐馬의 연결을 촉진시켜 보다 신속한 한구마의 출동에 공헌하였다.
- ⑤ 그 결과 한구사는 북아를 출동시켜 상대방을 무력 제압하는 전기 궁중정변에서 성패의 열쇠를 쥐었을 정도의 위치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현종기 이후는 그 직무가 서서히 飛龍使로 넘어가 형해화되었다.